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행사 종료 후 보도 가능(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배포 : 2023년 6월 20일(화)

윤석열 대통령,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참석

- 첨단기업 6개 사로부터 1조 2천억원(9.4억 달러) 투자 유치 -
- 한-유럽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 강화 -
- 이차전지, 전기차, 첨단소재 등 국가 전략 산업 공급망 확보 기대-

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월 21일(수) 오전 파리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했습니다.

동 행사에서 유럽지역 첨단기업 6개 사는 총 1조 2천억원(9.4억 달러)의 투자를 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6개 사 CEO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표하며,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 투자신고식 참석 기업 현황 >

기업	내용	기업	내용
(佛) Imerys	이차전지용 카본블랙	(노르웨이) Equinor	해상풍력 발전단지
(벨기에) Umicore	이차전지용 양극재	(덴마크) CIP	
(獨) Continental	전기차 부품	(英) Nylacast	고성능 폴리머(조선기자재)

6개 사는 앞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국내 투자를 진행하여 한국과 유럽 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될 것으

로 기대됩니다.

이메리스(Imerys)와 유미코아(Umicore)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시설 투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이차전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콘티넨탈(Continental)과 나일라캐스트(Nylacast)의 전기차·조선 소재·부품 생산시설은 첨단산업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에퀴노르(Equinor)와 씨아이피(CIP)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끝>